

Panasonic

Panasonic, Sports 전동자전거 전개

- Panasonic은 금년 여름에도 일본 국내 최초로 전동 Assist Mountain Bike를 발매 하는 등 신형 Sports 자전거를 순차적으로 투입하면서 동 자전거사업을 확대하고 있음.
- 침체된 Sports 자전거의 Frame 제조판매는 이벤트 참가와 경험이 풍부한 OB 재고용 등을 통해 판로를 확대하고 있음. Sports 자전거로 Panasonic Brand를 재건하고 있음.
- 동 자전거사업의 전체매출을 2027년까지 현재대비 3배인 1,000억엔으로 끌어 올리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있음.
- 자회사 Panasonic Cycle Tech(오사카)이 전동 Assist가 장착된 Mountain Bike 이외에 Flat Bar Road Bike 등의 투입을 검토하고 있음. 종전에는 육아중인 부모 등을 주된 이용 층으로 전동 Assist 자전거의 판매를 늘려왔음.
- 일본 국내의 동 자전거시장에서의 Share는 약 40%로 선두이지만, 경쟁이 격화되고 있음. 세계로 눈을 돌리면 자전거의 거대시장인 유럽은 체력에 자신이 없는 사람도 장거리 사이클링이 가능한 Sports 전동자전거가 지지를 받고 있어 일본에서도 보급이 전망된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임.
- Frame 제조 판매에서는 철합금이나 티타늄합금製 Frame을 직접 행하여 Order made로 치수를 조정할 수 있어 장거리를 타고도 피곤하지 않는 점을 어필함. 다만, 경량인 탄소섬유 강화Plastic(CFRP)製 Frame이 인기가 있기 때문에 수도권과 중부지방의 자전거이벤트, 전시회 등에서 강점을 어필하고 있음.
- 노출 기회를 늘려 자전거 양판점과의 파이프도 두텁게 하여 우선은 연간 7,500대의 판매를 목표로 브랜드 파워를 높여 나간다는 방침임.

< CFRP製 전동 Assist 자전거 >

